

# '사이버 인성교육' 전국 중고생 한자리에 모이다

## '2016년 청소년 인터넷권리침해 예방 캠프'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지난 7월 23일과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안성시 너리골문화마을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200여명과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청소년 인터넷권리침해 예방 캠프'를 개최했다.

방심위와 선플운동본부는 인터넷상의 악성댓글, 초상권침해 등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침해 문제가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르게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스스로 만들고 누리도록 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청소년 캠프는 이러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과 교사들의 열띤 참여 속에 진행된 '2016년 청소년 인터넷권리침해 예방 캠프'는, 인터넷권리침해 예방 선언문을 읽고 이를 성실히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해보는 '권리보호 다짐선서'로 포문을 열었다.

특히 박효중 방심위 위원장과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의 특강에 이어 인터넷권리침해 실태와 예



방·대응방법, 선플달기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강연과 이를 바탕으로 꾸민 OX퀴즈대회 및 포어 만들기, 기사작성 및 SNS 활용방법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관심을 끌었다.

박효중 방심위 위원장은 "인격이 존중받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은 나의 바른 인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청소년들이 깨닫고 느끼길 바란다"며 인터넷에서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은 "선플은 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과 보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든다"며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악성 댓글 근절과 선플달기 운동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영미 한국NGO신문사 대표는 글쓰기의 중요성과 글쓰는 방법 등

선플SNS기자단으로서 지켜야 할 글쓰기의 방법을 강의하며 아이들이 곧 글쓰기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를 지도했다.

또한, 지도에 표시된 지점을 찾아 다니며 건전한 인터넷 세상과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는 '오리엔티어링' 등 재미와 함께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소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다짐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선플운동본부와 방심위는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이 향후 소속 학교와 SNS 등 온라인에서 오픈이인 리더로 활발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연말 표창 및 시상할 실시하는 등 이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7월 23일과 24일 경기도 안성 너리골문화마을에서 '2016년 청소년 인터넷권리침해 예방 캠프'가 열렸다.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박효중 방심위위원회의 위원장, 다섯 번째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 '대화'와 '경청'으로 '소통'의 길 열어주세요!

"우리 엄마는 대화하자 하고는 꼭 마지막에 화를 내요.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것인가요?"

"엄마랑 대화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랑 거의 매일 다투는 데요, 대화를 안 하면 싸우지도 않고 일석이조잖아요.(어느 인터넷 고민 상담 사이트 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제작·방영하고 있는 KBS 인성채널-인성! 우리말의 새 콘텐츠가 공개됐다. '대화'와 '경청'을 주제로 15일에는 '대화(안)하는 법', 22일에는 '경청의 기술'이 전파를 탔다.

인성채널은 2014년부터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 실태', '따뜻한 언어로 만들어가는 사회'를 주제로 영상자

문체부·인성채널 '안녕! 우리말' 새 콘텐츠 2편 공개  
'나 전달법', '듣기 점수' 등 구체적 실천방법 안내

료를 제작, 언어문화 개선에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왔다. 올해는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2편의 영상을 통해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시했다.

매번 화내며 끝나는 엄마와의 대화 때문에 속상해지는 청소년들의 고민으로 시작하는 '대화(안)하는 법'은 '엄마 언어 번역기'를 소개한다. 속마음 그대로를 표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말을 잔소리로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공부 좀 해라'는 '포기가 아닌 노력을 배

우라'는 뜻이며 '그만 좀 자라'는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보라'는 것으로서 결론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부모나 학생 모두 표현 방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네가 문제야'가 아니라 '나는 이런 기분이야'를 솔직하게 말하는 '나 전달법(I message)'에 주목한다. '게임 좀 그만해' 대신 '네가 게임만 하니깐 엄마가 걱정돼'라고 화법을 바꾸면서 서로 싸우지 않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녕! 우리말' 새 콘텐츠 중 한 장면 (안녕!우리말 홈페이지)

22일 방송된 '경청의 기술'에서 1988년 미국 우주왕복선 '콜린저호' 발사 때의 일이 소개된다. '날씨가 추우면 고무링이 제구실을 할 수 없어 연기해야 한다'는 기술자

들의 말을 무시하고 발사를 감행했다가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했던 실화다. 반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높이 평가됐던 리더포드 헤이스 제19대 미대통령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고 자신의 듣기 점수는 몇 점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14년부터 제작된 총 10편의 영상 자료는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 공지압중은 2학기부터 매주 아침 방송시간에 영상을 시청할 계획이며 충남 탐정중도 최근 인성채널을 방영했다. 최원현 경기 공지압중 교사는 "평소 거친 말을 자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습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콘텐츠라고 판단해 방송부 학생들과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형수 인성채널 사무국장은 "조희나 종래, 막간 시간에 보여주거나 참예 시간에 직접 실천해보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5분 이내의 짧은 영상 상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 팝페라 가수 이사벨 '선플 주제곡' 전한다

선플재단(이사장·민병철)이 글로벌 팝페라 가수 이사벨과 함께 선플 주제곡을 제작, 발표했다. '선플'은 악곡의 반대말로, 행복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댓글을 뜻한다.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가 작사하고 영여 내레이션 녹음에 직접 참여한 이번 주제곡은 글로벌 선플 확산을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버전으로 제작됐다. 이사벨의 목소리에 현대적인 유로 댄스 음악을 가미해 획기적이면서도 대중적인 팝페라로 탄생했다. 주제곡은 선플재단에서 올해 초 시작한 공익 국수집 응원 캠페인에 팝페라 가수 이사벨이 참여하면서 제작에 몰입을 탔다. 수익금은 선플재단의 공익선플 캠페인 지원에 기부된다.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회사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 「세계 최초 흡시어터 스피커 케이스 개발」
- 「세계 최초 친환경 곡면 디자인헨들 개발」
- 「세계 최초 테두리가 없는 초슬림 베젤 개발」

세계 최첨단 Alumite 기술을 적용한 고품격은 디자인으로  
통신기기 분야, Handphone, Camera, CarAMP, 냉장고 DVD Front speaker 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미래테크윈', '미래코리아'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 “막말과 악플은 상대에 대한 배려 부족 때문”

## [인터뷰] 선플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

###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데는 민주적 절차 또한 중요 이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 필요 선플붐 일고 있는 학교의 경우, 자연스럽게 악플 사라져

최근 사회는 교육부 간부의 민중은 개 돼지 발언 등과 장학재단의 빛 파이팅으로 인해 말로 인한 갈등이 크다.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다. 이처럼 중요한 말은 격려를 할 때는 힘이 되고 악담을 할 때는 같이 되기도 한다.

사이버 상에서 선한 댓글달기를 주도하는 선플운동은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상의 바른언어교육인 선플운동을 10년째 실천하고 있는 선플달기운동본부 민병철 이사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최근 교육부 간부의 '민중은 개, 돼지' 발언이나 장학재단 이사장의 '빛이 있어야 파이팅한다'는 발언 등 교육계에도 막말 논란이 팽배하다. 이 같은 막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갈등을 양분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소통의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는데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소통은?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는 갈등을 유발하고 그 사회의 존립까지 위협하게 된다. 갈등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면 더 큰 발전의 발판이 되고,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두가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 갈등 해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내 앞의 '사람'이 아니라 갈등의 원인이 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문제를 함께 풀어갈 협력자가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소통의 원칙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독일은 재정위기를 맞고 있었다. 총리로 취임한 슈뢰더는 연금 축소하고 재정지출을 축소하는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다. 같은 당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수많은 미디어 토론을 개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토론과 공명화를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으로 합의율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다시 유럽 경제의 리더가 되었다. 반면 이탈리아나 그리스의 경우 사회적 갈등, 계층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해결을 위한 정치인들과 국민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월 1일, 청주 시청앞에서 458일 동안 농성을 하던 천 대를 청주노인병원 노조가 자진철거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2014년 근무교대 방식에 대한 작은 갈등에서 시작된 노

사갈등으로 2015년 6월 5일 병원이 폐업에 이르게 되고, 지방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노사갈등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방송을 본 이후라 더 관심을 가지고 기사를 썼다. 새로 병원위탁운영을 맡은 청주병원은 옛 청주노인병원 조합원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비운의 땅이 곧이어 청주시민들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또, 최근 '갑질'이라고 하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업내 상하급자간, 종업원과 고객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갑질의 심각성은 경제적 피해 못지않게 인격모욕이 큰 문제이다. 승무원을 겁박하고 항공기를 되돌린 항공사 임원의 이야기는 고전이 되었고, 얼마 전에는 한 젊은 검사가 상사의 갑질로 인해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갑질이라는 근거없는 불평등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갈등을 해결하는데는 민주적 절차 또한 중요하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의 과정은 불신과 오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 중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프랑스에서는 갈등관리전문기구인 국가공공토론위원회에서 대형 국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방안을 국민 토론을 통해 발굴해내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국민대통령위원회 같은 기구가 있는데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해본다.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 메시지와 같은 다양한 소통 창구가 활성화되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갈등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SNS를 통해 소통하려는 노력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나타나고 있다. 때로는 SNS에서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SNS라는 도구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느냐가 문제이다. 사이버 세상은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



민병철 이사장

고 있으며 편리하고 다양한 소통창구의 증가가 더 많은 악플을 양산해 내고 있다. 과거에는 악플러들이 대개 10대 청소년들이었으나 2015년 사이버폭력 피의자 분석에서 20대가 22.4%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7.7%, 40대가 13%, 10대가 11.3%, 50대가 9.3%로 전연령대에서 악플을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주로 사용하는 SNS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간 문화차이가 존재한다. 청소년들에게 인기있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 누구나 쉽게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SNS미디어이지만 기성세대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요즘 청소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하고, 어른들은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많이 이용한다. 이처럼 주로 사용하는 SNS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도 아주 다르다.

물론,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보다 온라인 메시지를 다루는데 더욱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통점은 정서는 온라인에 집중되어 있지만 생활은 결국 오프라인이라는 것이다. 학교도 다니고 선생님으로부터 수업도 받고 친구도 만나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러므로 다양성을 인정 해주되 상대방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소

● 말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바람직한 사회분위기와 당부하고 싶은 견해가 있으시다면?

사실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원칙은 너무나 간단하다. 중학생들이 공부하는 국어 교과서에 갈등과 협상이라는 내용이 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를 경우 협상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정한다면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협상의 절차는 ▲상대를 만나 문제를 확인하고 ▲상대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올해 최우수 갈등해결사례로 선정한 '부천시와 노점간의 갈등 해결 사례'를 보면, 단속위주의 노점단속이 예산낭비만 일으키는 상황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00회 이상의 실무 회의를 거쳐 '지자체와 노점상 공동업무협약'을 맺고, 합의에 의해 '노점 양성화 정책'을 추진했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창계 67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은 지하상가의 상인들의 반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위협을 무릅쓰고 무단횡단을 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권 보장을 위해서도 횡단보도가 꼭 필요했지만, 지하상가 상인들의 생존권도 중요한 문제였다. 상인대표와 담당자들은 수 많은 회의와 조율을 통해 상가에 피해가 적도록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입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강요할 경우,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내뱉게 된다. 칼로 입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지만 말이나 글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회복하기 어렵다. 그만큼 말과 글은 마음에 깊숙한 상처를 낸다.

우선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 해야 한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커질 사이버 세상의 언어를 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세상을 동시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는 사이버세상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이버 세상에 대비한 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

선플운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악플의 폐해를 깨닫게 되어 악플을 달지 않게 된다. 글쓰기 전에 적어도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된다.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나쁜 글을 올리는 대신 좋은 글 달기를 지속하다 보면 상대를 배려하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몸에 습관처럼 베게 되면 사회에서 말과 글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 정광고 선플누리단, 광주지역 '친절선플가게' 5곳 선정

### 정광서점, 알리바이 소춘점, 핫도그 & 커피, 자연숲, 이모네 주먹밥 '친절선플인증서' 전달



친절선플가게 정광서점에서 (고훈)

정광고등학교 선플누리단(교장 임형철) 및 광주 SNS 기자단 소속 청소년 370명은 지난 7월11일~13일 정광서점, 알리바이 소춘점, 핫도그 & 커피, 자연숲, 이모네 주먹밥 등 5곳을 '친절선플가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친절선플가게'는 지난 5월3일부터 6월14일까지 온라인 설문 통해 개인 별 3곳의 친절가게를 선택하고, 친절선호도와 추천사유를 제시하면, 학생으로 구성된 친절 선플 위원회가 모인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한 후, 선정된 가게를 직접 찾아, 사장님께 친절선플 인증서를 전달하고,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친절선플가게 선정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사장님은 학생들을 맞이할 때 따뜻한 말과 작은 미소로 친절하게 대하고, 학생들은 격려와 위로를 받고, 그 고마움을 친절한 사장님께 되돌려드리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또 하나의

선플 운동이다. 선플달기운동이 온라인상에서 선한 댓글을 다는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바탕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 줌으로써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문화운동'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광주지역 한 선플달기운동 지도교사는 "KTX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여러 국제행사와 지역 축제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며 "친절선플가게는 단순하게 친절한 가게를 뽑는 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는 정서 및 소통문화 개선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이다."고 말했다.

친절선플가게 선정은 정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광산구의 수완고등학교, 남구의 동아여자고등학교, 북구의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선플누리단 등의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광고등학교 선플누리단은 친절선플가게로 선정된 가게 주변의 환경정화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며, 2016 희망나눔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현충절서 기부 캠페인 및 블로그 운동을 통한 사이버기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종태 기자

## 둔산서, 충남고에서 등갯길 '선플달기 캠페인' 실시



충남고에서 등갯길 '선플달기 캠페인' 실시 (둔산서)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에서는 23일 충남고등학교에서 등갯길 선플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톡, 카스, 밴드,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용량의 급증과 함께 사이버 학교폭력과 사이버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는 착한 댓글달기, 악플 추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판단,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실시했다. 둔산경찰서 배종혁 학교전담경찰관은 "앞으로 청소년들이 사이버 괴롭힘·왕따·언어폭력 등 사이버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성운 기자

# 훈민정음을 국보1호로 지정해야

지난 31일, 한글과 문화 관련 시민단체인 '문화재지킴이'와 '(사)우리문화지킴이', '국어문화실천협의회' 등 3개 단체들은 20대 국회 1호 청원으로 훈민정음을 국보1호로 지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이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것은 1934년 조선 총독이 경성 남대문을 조선 보물1호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며 "2005년에 감시원이 국보 1호 해지를 권고했지만, 문화재위원회는 경비가 많이 들고 '훈민정음은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라고 밝혔다.

'국어문화실천협의회' 이대로 회장은 평생을 외골수로 한글운동에 바친 시민운동가이다. 그는 한글문화 창달 외에도 '세종대왕 나신 곳 성역화'와 훈민정음을 국보1호로 지정하자는 운동 등 한글과 세종대왕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시민운동의 보폭을 넓혀 오고 있다.

지난 7일,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 회장을 만나 최근 다시 불붙기 시작한 국보1호 재지정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인터뷰]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 회장

### 이대로 회장, 국민여론 무시하는 문화재청의 행정 편의주의 비난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 회장 이자."라고 말했다.

대신 훈민정음에 민족적 상징성 의미 부여해야

○ **최근 다시 논쟁에 불이 붙은 국보 1호 재지정 문제와 관련, 왜 훈민정음이여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

- "나는 50년 전, 대학생 때부터 한글운동에 뛰어 들었다. 우리의 최고 훌륭한 문화유산인 한글이 사실 정부나 학자나 국민들로부터 천대받던 시절이었다. 지금의 송례문이 아직도 남대문으로 불리던 당시인 14대 국회 때, 원광호 의원과 뜻이 맞아 국회의원 이흥표를 한글로 바꾸자는 운동을 하면서 광복 50주년이 지난 1996년, 한상범교수와 한글학회 허응교수, 원광호의원 등과 함께 일제 시대에 총독이 정한 송례문(당시 남대문)을 어떻게 국보로 인정하느냐면서 국보 1호를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하자는 학술토론회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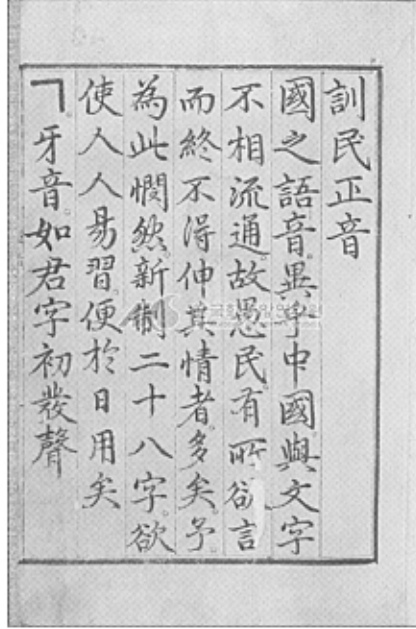
또 한 교수는 "이뿐 아니라 우리 국보도 일제 총독이 정한 조선 보물 지정번호를 그대로 빼겠다. 나는 나라와 겨레가 발전하려면 한글이 빛나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이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해 국보1호만이라도 우리의 가장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1호로 바꿔 겨레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

일제 시대 총독이 지정한 국보 1호

해방 후, 전 분야가 대 변화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우리정부는 일제 당시 구축된 행정체제, 인력 등을 그대로 이어 받게 되었다. 국보지정 체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상범 교수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왜군이 바로 남대문을 통해 한양도성으로 쳐들어 왔다. 일본은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남대문을 조선 보물 1호로 한 것이다. 솔직히 송례문이 건물 자체로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큰 건물을 경복궁 근정전 등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조선총독이 더 큰 근정전을 놔두고 송례문을 1호로 정했겠는가. 그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제기하는 국보1호 바꾸자는 이유를 알 것이다. 해방 당시

는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급한 대로 일본식 행정을 답습했다. 차더라도 광복 70주년을 맞는 오늘날엔 우리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국보나 보물의 우열을 가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국보 1호'가 갖는 상징성이 매우 크니 국민의 소망을 담아 훈민정



훈민정음 해례본 (백과사전)

음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정해 우리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드높이자는 것이다."

남대문과 동대문이 국보 1호와 보물 1호로 된 사실은 2002년 한국근현대사 연구자이며, 일본 풍북대 특별연구원인 오타 히데하루의 서울대 석사논문(근대 한·일 양국의 성곽인식과 일본의 조선 식민지 정책)에서 발견된다. 바로 일본 군국주의의 끈적끈적한 흔적이다.

그 연구에 의하면 국보 1호인 남대문은 임진왜란의 선봉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가 왜군을 이끌고 남대문을 통해 한양에 진입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고 보물 1호인 동대문도 고시니 유키나가 통과했다하여 승전의 상징물로 보존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 **훈민정음은 국민들 귀에 익지만 해례본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 당시, 글자를 만든 원리, 목적, 이유, 쓰임새, 활용법 등을 해설한 것이다. 문자의 구조를 해설한 그런 책이 세계 어디에도 없다. 세계 유일한 문

자 제정 설명서인 해례본 자체가 우리 국보이면서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 이 훌륭한 한글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한글이 천대받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해례본을 국보 1호로 정해서 잘 활용해야 한다. 문화재로도 해례본은 큰 가치가 있지만, 실질적 문화 창조 발전에도 훌륭한 무기이고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가치와 상징성에 대해 교수, 국회의원들도 의외로 잘 모른다.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우리들의 노력으로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기도 했고, 세종대왕 나신 곳 성역화운동, 국보1호 재지정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이는 우리민족과 나라가 발전하고 빛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먼저 빨리 해야 할 일이다. 지금도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해례본이 무엇인지, 얼마나 귀중하고 좋은지를 모른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1호로 지정하는 단체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국보1호의 상징성을 고려, 세계언어문화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국운 융성의 밑바탕이 되었던 훈민정음의 문화적 가치를 민족의 유산으로 보존해야 하며, 둘째, 일제가 남대문(송례문)을 조선 보물1호로 지정한 배경에는 일제 군국주의의 침략적, 반민족적 의도가 짙게 깔려 있고 셋째, 송례문의 화재로 인한 재건축 과정에서 온갖 불법 비리와 부패의 민낯이 드러나 국보1호의 상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권력화된 문화재청 해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재국'으로 되돌아가야

○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1호로 지정하는 운동에 동의를 하지 않은 쪽의 반대 논리는 무엇인가.**

- "반대하는 쪽은 일본식 한자 혼용주의자들, 친일 정치인 등 친일·보수 세력들과 영터리 문화재 전문가들이다. 친선하는 쪽은 민족운동세력, 개혁세력이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지만, 국민적 여론과는 상관없이 문화재위원들은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했다. 문화재청은 현행 국보지정방식이 국보나 보물의 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관리 번호일 뿐이라는 것이라며 귀를 막고 있다. 그러나 1호와 70호만 바꾸면 훈민정음도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 반면 이익은 수만배 더 크다"

○ **문화재청도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아니다. 문화재위원들은 지금까지도 국민여론 여론을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반민주 권력 집단이 되어 갑질을 일삼고 있다. 1996년 당시 우리가 한 여론조사로는 1호를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하되는데 찬성 여론이 많았다."

나는 차라리 문화재청을 해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문화재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본다. 문화재전문위원들은 문화재라고 하면 돌조각이나 기와장 정도만 문화재로 아는 것 같다. 훈민정음보다 더한 문화재가 어디 있나. 문화재위원들 중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가 많은 것 같다. 문화재위원들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권력자가 되어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여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가."

○ **평생 한글 운동에 투신하셨는데 어려움과 보람도 많았을 것 같다.**

- "박정희 대통령은 1964년부터 교과서를 일본처럼 한자혼용 방식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정부의 국어정책이 뒤바뀌는 것을 보고 대학에 들어온 우리는 국어운동 대학생활을 만들고 관공문에서 시위하는 등 가열차게 운동에 전념했다. 또 당시 이은상 시인,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 등도 평소 이은상 장군과 세종대왕을 존경하던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조상들의 업적을 선양하기 위해서라도 한글 정책을 펴달라고 조언한 결과, 1968년 한글 전용정책으로 전환하게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후, 광화문, 현충사, 여주 영릉, 삼일문, 탑골공원 등의 현판을 모두 한글로 다시 썼다. 다른 국보는 플라도 국보 1호만은 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한글의 높은 상징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담아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1호로 지정하는 것은 새 역사를 쓰는 일이고 나라의 품격과 자존심을 드높이는 의미가 매우 큰 일이다. 문화재청은 모든 국보 번호를 없애자니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영터리 문화재 전문가가 말을 듣지 말고 이번엔 국민 뜻을 꼭 지켜주길 바란다."

이 회장은 가장 존경한다는 공병우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에게 "너에게 아무것도 줄게 없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것이 것뿐이니 이거라도 팔아서 한글운동에 쓰라."면서 공 박사가 취미생활로 활동했던 당시에 펴낸 '공병우 사진 작품집'을 보여주면서 죽는 날까지 공병우 박사의 '한글이 빛나야 한겨레가 빛난다.'는 뜻과 정신을 이어갈 것을 밝히고 다짐했다.

은경 기자

## 청소년 언어문화개선 위해, '우리말 유랑단'이 찾아간다



우리말 유랑단 (서경덕 교수)

### 옹알스 - 서경덕 교수 의기투합 전국 돌며 우리말 개그공연 · 특강

개그와 한국 홍보 전문가,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만났다.

한류 개그팀 '옹알스'와 한국 홍보 전문가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의기투합해 만든 '우리말 유랑단'이 전국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찾아나섰다.

옹알스는 세계적인 공연 축제인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2년 연속 별 5개의 최고 평점을 받았으며 멜버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서는 디렉터초이스를 수상한 세계적인 난버널 퍼포먼스 팀이다.

'우리말 유랑단'은 지난날 27일 경기도 안양시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충청, 강원 등 전국을 순회하며 '우리말 개그 공연'과 '우리말 세계화' 특강을 시작했다.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우리말 유랑단'은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서 교수는 "인터넷과 SNS의 시대를 사는 지금 비속어와 줄임말 등이 난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고자 '우리말 유랑단'을 창단하게 됐다"고 기획 의도를 말했다.

박미경 기자



인하대 국어문화원이 개최한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 수료식에서 참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 인하대 국어문화원,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 수료식 개최

### 인천시 고등학교 22개교 81명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 위촉

인하대 국어문화원(원장·박덕유)이 13일 인하대 60주년 기념관에서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 수료식을 열었다.

이날 수료식을 통해 인천지역 22개교 고등학생 81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 5기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각 학교 담당교사들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4주간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들은 매주 토요일 '폼겨

있는 우리말(비속어, 은어, 인터넷용어 사용 자제), 정확한 우리말(어문규정 준수), 아름다운 우리말(교유어 사용) 등의 교육을 받았다.

또한, 이 교육을 바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리말 파괴현상의 실제조사를 펼쳤으며,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출판하고 활동 사례를 직접 발표하였다.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 학생들은 각 학교로 돌아가 올바른 국어 사용 및 폼겨

있는 청소년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선도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

박덕유 국어문화원장은 특강에서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추세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오려려 우리는 한글 파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음을 지적하며, "바르고 정확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 기자



28일 오전 울산광역시교육청 3층 위원회실에서 열린 선플학부모지원단 위촉식에서 지원단 25명이 위촉을 받고 파이팅을 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 울산교육청, 선플학부모지원단 25명 위촉

울산광역시교육청은 4월 28일 시교육청 3층 위원회실에서 비파악한 언어·사이버폭력 예방 운동을 전개하고 자녀의 학교폭력·자살·왕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플학부모지원단 25명을 대상으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선플학부모지원단은 단위학교의 선정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로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춘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촉을 받은 선플학부모지원단은 1년간 사이버·언어폭력예방과 자녀인성교육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게 되며, 자녀 선플달기 캠페인 외에도 자녀 언어문화 개선과 감사·배려·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시교육청 선플학부모지원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사)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와 협약(12. 6. 29)을 기점으로 울산 선플운동의 초석이 되어 왔는데, 최근 선플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16. 4. 현재, 울산이 전국 1위를 연속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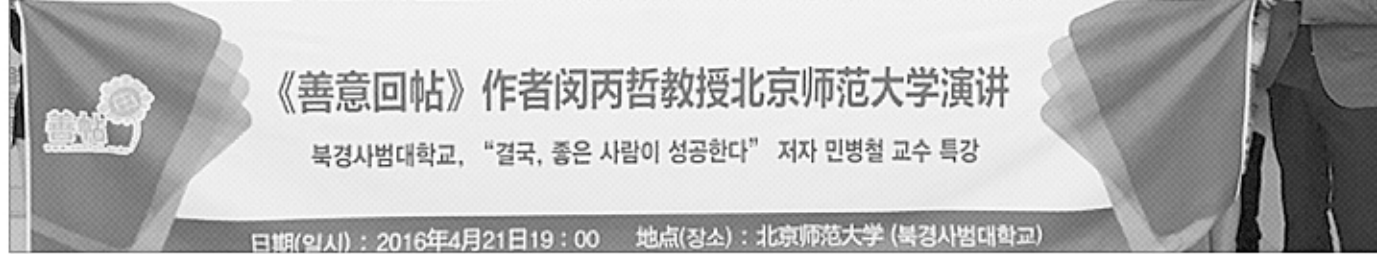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울산은 선플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학생 1명당 435건에 비해 전국 1위이며 2위인 대전 47건에 비해 약 10배나 많다. 또한 최다 선플학교 수는 전국 20개교 중에서 울산관내 학교는 6개교로 울산 동백초 외 5개교가 포함되어 있다.

울산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러한 선플달기 운동은 배려·존중 등 긍정적인 사고전환으로 인성함양과 언어·사이버 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주말 기자

# 선플운동, 한류문화로 중국에 본격 소개

## 민병철 선플 이사장,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중국 출판기념회 열어



4월 21일(목) 중국 북경사범대학교에서 선플강연회를 마치고 북경사범대 학생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선플운동본부)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4월 21일(목)에는 중국 북경사범대학교에서 북경사범대 학생들과 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플강연회를 개최한데 이어 4월 22일(금) 청소년 선플인성교육 도서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의 중국어 판 '善意回帖(선한댓글)' 출판 기념행사를 북경에서 개최했다.

올해 1월,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 공익유명인사 17위에 선정된 바 있는 민

병철 이사장은 "현재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들에게 따뜻한 국수를 무료로 나눠주는 중국 항조우의 공익국수집을 응원하는 선플달기캠페인에 한국 네티즌들이 참여하고 있다"면서, "선플운동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이 어려울 때 힘을 주는 가까운 이웃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병철 교수의 '결국,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 욕설 등을 하지 말

고,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 사회에 긍정에너지를 전파하는 선플운동을 통해 청소년 인성교육 및 인터넷 평화운동을 전개해온 내용을 정리한 이 시대의 청춘 멘토링이다.

이번 중국어 선플인성도서는 '중국 인민일보'에서 번역을 맡았으며, 권위있는 인문학 서적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중국 중앙편역출판사에서 출판을 맡았다. 중국

조용태 기자

### 민병철 교수, 중국 웨이보 '공익유명인사' 선정

#### 세계인터넷 대회, 중국CCTV통해 사이버폭력 예방 선플운동 소개



중국 웨이보 민병철교수 선플운동 사이트 (http://weibo.com/sunpl/bcm)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가 6여 명의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최대의 SNS 웨이보에서 발표한 '공익유명인사 랭킹' 17위에 선정되었다. 이번 중국 웨이보 '공익유명인사 랭킹'은 2014.12.1부터 2015.11.30까지 웨이보에서 공익 활동 내역과 열람 횟수를 분석하여 상위 150명을 선정한 결과이다.

민병철 교수가 중국(웨이보)에서 선정한 '공익유명인사 랭킹' 17위에 오른 것은 자신의 팔로워 26만명을 대상으로 응원하고 배려의 선플운동을 전개하고, 중국 네티즌들과 실시간 2차례 '선플토론회'를 통해 5,700만 명이 '선플' 관련 글을 읽는 등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선

플운동'을 확산시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철 교수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악플 대신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을 통해 긍정에너지를 전파하고, 네티즌들이 선플운동을 통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가까운 이웃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병철 교수는 지난 12월 16일,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저장(浙江)성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에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선플운동'을 소개하고, 이 내용이 같은 달 20일 중국(CCTV) 인기 프로그램인 '대담(Dialogue)'을 통해 방송되었다.

지난 2008년과 2013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발생 당시 전국의 청소년들과 선플교사들이 대지진 희생자들을 위해 올린 추모 선플 1만여 개를 모아 만든 추모선플집을 CCTV에 전달했고, 선플운동에 동참하게 된 중국의 네티즌들도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추모사이트를 개설하고 5만여 명의 중국 네티즌들이 추모의 뜻을 밝혀오는 등 선플운동을 통해 한중 민간 친선 공공외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

조용태 기자

## 김해신안초, 학교폭력 예방 및 건전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선플음악회' 개최

김해신안초(교장 이운옥)는 7월 14일 오전 아침 등굣길 선플누리단 50명과 합주부 25명이 주축이 되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건전사이버 문화 조성하자는 '선플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선플음악회'는 김해신안초 합주부원들이 다양한 선플 공연을 하고, 그 공연을 본 학생들이 합주부예를 응원의 선플을 달아 서로가 서로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선플누리단 회장 구분우 학생은 "무더운 여름 아침 공연을 하고,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선플누리단의 캠페인을 보고 친구들이 선플을 달려는 고운 맘을 가져 너무나 뿌듯하다"고 하였다.

이번 캠페인을 기획한 이운옥 교장은 "아침 등굣길 합주부원들이 클래식에서부터 선플을 달자고 개작한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여 전교생의 정서순화에 큰 도움을 주며, 이 자체가 바른 인성함양이다. 앞으로 월 1회 아침 등굣길 선플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 2015년 선플 지도자 대상을 수상한 박현성 선생은 "선플운동은 인터넷에서 선한 댓글을 다는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친구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등의 친구를 배려하는 모든 운동이 선플운동이 될 수 있다"며, "선플 운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친구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는 하나의 캠페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7월 14일, 김해신안초에서 '선플음악회'를 하고 있다. (박현성)

선플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욕설과 비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말고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주는 운동으로, 김해신안초는 경남을 넘어 전국에서 으뜸가는 선플운동 우수학교이다.

조용태 기자

##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가 답이다

학교 폭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초등학교에서의 학교 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만9000명의 학교 폭력 피해학생의 68%가 초등학생이었다.

교육부는 1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학교폭력 주요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의 응답률은 9만9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5000명(0.1%포인트) 감소한 0.9%로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의 감소폭(0.2%포인트)이 가장 컸다.

피해를 봤다는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2.1%(2만6400명), 중학교 0.5%(7100명), 고등학교 0.3%(5200명)으로 특히 초등 4학년의 피해 응답률이 3.9%로 5학년(1.6%), 6학년(0.9%)보다 높게 나타났다.

피해유형별 응답건수는 학생 1000명을 기준으로 언어폭력 6.2건, 집단따돌림 3.3건, 신체폭행 2.2건 등의 순으로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다.

이에 교육부는 먼저 초등학생 중 학교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

을 대상으로 가정의 돌봄·상담·교육 기능이 통합된 가정형 위(Wee)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난해 8개소에서 올해는 15개소로 늘리고 정신과 전문의를 자원으로 위축해 고위험학생 심리치료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심리치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폭행 피해가 가장 많았던 언어폭력 대책과 관련 언어문화개선 선도학교를 200개교 지정해 운영하고 100개교에는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아나운서 선생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집단따돌림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아계동무학교) 3531개교를 운영하고 어울림프로그램을 1011개교에서 실시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학교를 지난해 244개교에서 올해 595개교로 늘린다.

사이버괴롭힘 예방을 위해 대책 사이버폭력예방 선도학교를 지난해 100개교에서 올해 150개교로 늘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과 사이버폭력 예방 동아리 운영,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조용태 기자

## '소망을 말해봐' 소망을 응원하는 선플달기

###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정치인에 바라는 소망 등 2만개 올라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전 건국대학교 교수)는 4월 6일, '소망을 말해봐! (소망을 응원하는 선플달기)'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소망응원 선플캠페인'을 시작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소망, 가족과 친구, 사회에 대한 소망을 올리고 다른 친구들의 소망을 응원하는 선플을 달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시던 청소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

요",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미술가가 되고 싶어요", "요리사가 꿈입니다. 맛있는 요리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등, 소망게시판 (http://hope.sunpl.or.kr)에는 학생들의 소망과 응원선플이 이틀 만에 1,300여개가 올라왔다.

지난 3년간 국회 회의록을 분석하여 '정치인이 모니터 활동'을 통해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선플 국회의원들을 선정해 온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학생들은 개인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신념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회가 비리없고 더 나은 사회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등의 바램을 소망게시판에 적었다.

선플운동본부는 소망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취합하여 청소년들의 소망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선플커넥터(자원봉사멘토)

들과 청소년들을 연결시켜주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며, 프리마미술관 이상준 대표, 건국대 건축대학 오종근 교수, 취업정보 전문기업 스퀘어 민병도 회장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는 '선플커넥터 프로젝트'에 동참의 뜻을 밝혀 왔다.

또한 선플운동본부는 '인격이 존중받는 따뜻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피해구제 캠페인과 선플운동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특히 청소년 인터넷 권리침해 예방과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춘 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태 기자

## '선플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요' 선플 확산 위한 선플공모전 실시

### 만화, 수필, 포스터, UCC 등 다양한 부문 참가 가능

(사)선플운동본부가 9월 1일부터 선플공모전을 실시한다고 8월 23일 밝혔다.

(사)선플운동본부 관계자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선플달기'를 주제로 포어, 포스터, 만화, 3분UCC, 사진, 블로그, 수필 부문에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선플공모전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상에 존중하고 격려하는 선플운동을 인식하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선플공모전은 행정자치부, 외교부, 교

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후원으로 (사)선플운동본부가 주최한다. 공모주제는 ▲아름다운 글과 말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플운동을 홍보 동함을 유도할 수 있는 작품 ▲선플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이다.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부에 따라 응모자격이 나뉘어지며, 선플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필수다.

선플 포어의 경우 온라인 접수 양식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여러편을 제출하는 경우 압축파일인 아닌 1개씩 개별 첨부해서 올려야한다. 포스터 및 만화는 A3으로 제작해야하며 손으로 그릴 경우에는 스캔하여 JPG파일을 제출해야한다. 관계자는 "악플의 피해를 나타낸 어두운 내용 보다는 선플을 권하는 밝은 작품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플 3분 UCC는 역시, 공익광고 형식으로 하여 3분 내외의 동영상 파일을 제출해야한다. UCC에 들어가는 배경음악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CCL 음악, 창작음악이나 선플송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입상자는 12월 초 선플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당선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것이다. 수상자는 ▲대상 1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12명 ▲장려상 24명, 가작 등이다. 시상식은 1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다.

박미경 기자

# ‘중국 공익국숫집 응원선플사이트 전달식’, 중국 선플문화 확산기대

## 한국 청소년들이 응원하는 ‘중국 항저우 공익국숫집’ 응원선플사이트 중국에 전달



앞줄 왼쪽에서 첫 번째 정한글 선플대학생 대표, 두 번째 최고은 선플청년포럼 홍보위원장, 여섯 번째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일곱 번째 정창량 항저우 공익국숫집 대표, 아홉번째 지우중 선플재단 이사, 열 번째 천강 선플운동 중국 홍보대사

(재)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는 지난 8월 25일, 중국 항저우 공익국숫집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과 한국 청소년들이 올린 1만여 개의 응원 선플이 담긴 ‘중국 항저우 공익국숫집 응원사이트’를 공익국숫집 정창량 대표에게 전달했다.

1995년부터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해오던 정창량씨는 2013년부터 추운 겨울 이른 새벽, 찬 음식을 먹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보고 매일 새벽에 환경미화원들에게 따뜻한 고기국수 한 그릇씩을 무료로 제공하고, 여름에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시원한 녹두국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중국 우전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에 참석한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

사장은 중국 관영 CCTV에 출연하여 인터넷 악플추방과 긍정에너지 확산을 위한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을 소개하고, CCTV 방송중 환경미화원들을 위한 항저우의 공익국숫집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귀국 후 2016년 1월 1일, 중국 공익국숫집 응원 선플달기 캠페인 사이트를 개설하여 한국 청소년들이 올린 공익국숫집 응원선플이 현재 1만여 개에 이르고 있다.

선플운동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좋은 문화를 소개하고 긍정에너지 확산을 위해 한중선플캠페인을 추진해 온 선플운동본부에서는 지난 2008년 7만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쓰촨성 대지진 당시 ‘쓰촨성 대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추모와 위로의 선플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2014년에는 손수레로 93세 노모를 모시고 중국

전역을 여행하는 63세의 씨에슈화씨 모녀를 초청하여 ‘한국 청소년들을 위한 효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도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추모 사이트를 개설하고 5만여 명이 추모의 뜻을 밝혀왔다.

한국 청소년들의 응원 선플 사이트를 전달받은 중국 항저우 공익국숫집 장창량씨는 “청량공익국숫집을 응원해준 한국 네티즌들에게 감사드린다. 중국과 한국의 네티즌들이 힘을 합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공익활동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를 중국의 네티즌들이 선플운동을 통해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주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선플운동을 통한 민간선전의교화운동을 전개해온 민병철 이사장은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이 선플운동을 통해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해주는 좋은 이웃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항저우에서 개최된 ‘청량공익국숫집 응원사이트 전달식’은 6여명의 회원이 보유한 중국 최대의 SNS 웨이보에서 실시간으로 취재하여 행사 진행을 중국 네티즌들에게 소개하였다.

2007년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영어수업을 들던 대학생들에게 선플과제를 내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선플운동은 지난 9년간, 국내에서 7천여 학교와 단체에서 62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여 선플운동 홈페이지에 올랐던 선플이 680만개를 넘어섰고, 울산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산하 학교에 전면 도입한 이후 학교 폭력 발생율이 절반이하로 감소하는 등 청소년 인성교육과 학교폭력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은태 기자

# 문체부, 부모·자녀 게임 소통 위한 가족캠프 진행



건전 게임문화 가족캠프·호남권 여름캠프’에 참가한 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캠프를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북 완주 청정인성수련원에서 ‘건전 게임문화 가족캠프·호남권 여름캠프’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캠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건전 게임문화 가

족캠프는 참여·공감형 가족캠프로서 게임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고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캠프다. 가족캠프는 수도권과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3개 권역에서 여름과 겨울에 방학기간을 중심으로 연간 6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회 가족 단위로 100여 명 이상이 참가한다.

이번 호남지역 ‘2016 건전게임문화 가족캠프’는 게임 체험(기능성게임, 가상현실 게임, 추억의 게임 등)과 건전 게임

멘토링(게임 과몰입 예방 지도와 상담), 게임리터러시 특강, 게임 제작 등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에 최성희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대표적 여가활동이자 스트레스 해소 수단인 반면 부모 세대는 게임 이용 경험이 부족해 불안과 불안감이 크다”며 “게임이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가 활동이자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걸 기자

# 문화가 있는 날, 도서관 서비스 확대된다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당일 대출 권수 ‘2배’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 확산과 독서·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위해 도서관, 박물관을 무대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도서관·박물관 1관 1단(1관(도서관, 박물관) 1단(문화예술 커뮤니티))’을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가 있는 날’에는 공공도서관의 책 대출 권수를 ‘2배’로 확대한다.

‘도서관·박물관 1관 1단’ 사업은 지역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과 박물관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거나 재능 있는 지역주민들이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커뮤니티의 구성과 공연·전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사업설명회 이후 도서관·박물관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61개 ‘1관 1단’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도서관·박물관과 문화예술 커뮤니티는

활발한 활동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문체부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공연 등에 소요되는 공연장 준비비와 홍보비 등의 직접경비와 함께 분야별 전문가 멘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재능을 다듬어 활동할 수 있도록 간접경비도 지원한다.

공공도서관과 박물관은 지역주민들이 ‘1관 1단’에 참여하여 문체부에서 과전한 문화예술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함께 즐기고 배우며 공연과 연주, 전시, 발표회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고 매달 ‘문화가 있는 날’이나 주말에 공연·전시 등도 진행한다. 이번 달부터 61개 ‘1관 1단’들이 본격적으로 공연과 전시 등을 펼침에 따라 지역 생활 곳곳에 불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체부는 국민들의 독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500여 개 공공도서관에서 한 사람당 빌릴 수 있는 도서 대출 권수를 ‘2배’로 확대한다. 이날 도서 대출 권수는 평균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되며, 서울 종로도서관과 평택시립도서관, 충남 중앙도서관 등 6개 도서관에서는 최대 2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2배로 대출’을 계기로 더욱 다양한 분야의 도서를 더 많이 대출할 수 있어 그동안 도서 대출 권수 제약으로 흥분한 독서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매월 도서관·박물관 ‘1관 1단’의 공연과 전시 등에 대한 정보와 ‘2배로 대출’을 시행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가 있는 날’ 통합정보안내 홈페이지(<http://www.culture.go.kr/wday>) 또는 문화가있는날.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 선플재단 청년포럼-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 아동 청소년 안전 위한 업무협약

## ‘아동 청소년 안전, 사고예방, 인성, 건강 2017년 의무화 교육’ 대비 지도자 교육 양성

선플재단 청년위원회(회장 정은채)와 사)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회장 이영화, 전 대전광역시 경찰청장)는 8월 16일, 에스알생활건강 회의실에서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사고예방과 인성교육, 건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2017년부터 의무화 교육에 맞춰 지도자 교육과 양성을 위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선플재단 청년위원회는 인터넷 상에서 근거없는 비난과 욕설 등을 하지 말고 스마트폰 상에서 일어나는 왕따와 같은 인터넷 폭력과 악플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운동과 함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한 스마트폰 안전 사용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인성교육과 웰니스코칭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에서는 학교폭력, 미아방지, 성범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확산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정은채 선플재단 청년위원회 회장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필수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예방과 인성 등 건강이



8월 16일, 에스알생활건강 회의실에서 선플재단 청년위원회와 사)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 업무협약을 맺었다.

최우선이라며 우리 어른이 먼저 행동으로 움직여 배움과 나눔 등을 통한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할 속제였는데 이와 같은 속제를 청년 100여명이 힘을 모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사회의 미래이다. 우리사회의 미래의 주인공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현실속에 인터넷 발전과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각종 사고는 물론 거북목증후군, 팔꿈치염, 손목터널 증

후군 등 정신적 건강은 물론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2017년 저학년 30시간 이상 고학년 36시간 이상 의무화 교육 되면서 각 지자체등 경찰서, 학교, 청소년 교육기관에서는 의무화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은채 선플재단 청년위원회 회장은 오는 9월 24일 10시30분, 2016년 광명시 청소년의 날을 맞아 청소년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광명시에서 100만 선플자원봉사단 출범식과 함께 특강을 진행한다.

팔꿈치염이란 첨단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나머지 뇌가 현실에 무감각 또는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장시간 인터넷 사용자의 뇌를 촬영한 MRI 영상 분석한 결과 인간의 뇌에서 생각 중추를 담당하는 회백질의 크기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팔꿈치염 곧바로 이어 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할 뿐 다른 사람의 감정 또는 느리고 무관하게 변화하는 현실에는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은태 기자

## Nothing protects quite like HJ PnA

**사/업/분/야**

- UPS 설비구축
- 항온항습기 설비구축
- STS 설비구축
- Generator 설비구축
- Battery 설비구축
- 가스소방 설비구축
- 수변전 설비구축
- 전기공사
- IDC 컨설팅 서비스

HJ PnA는 Mission Critical 인프라가 요구되는 반도체, 전산센터, 병원 발전시스템에 UPS, 배터리, 발전기, 공조시스템 등을 고객의 요건에 맞춰 최적의 설계, 시스템 조항, 정밀 시공 그리고 안정된 유지보수, 관리까지 하는 Never Stop Solution 으로서 소중한 고객의 재산, 데이터 및 정보 생산물을 지키는 가장 든든하며 신뢰 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Be Happy and Joy with HJ PnA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49 본사(공정) :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수레실길 14  
TEL. 02 2281 0035 / www.hajpna.co.kr

# 문체부, 중화권 대상 교육방송 <여행 한국어> 제작 착수

### 중국교육방송(CETV) 통해 올 10월 방영예정

오는 10월 중화권을 대상으로 첫 방영이 될 한국어 교육방송프로그램이 제작에 들어갔다. 한국어 초급자용 <바로 배워 바로 쓰는 '여행 한국어'>(이하 여행 한국어)가 바로 그 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은 8월 10일(수) 세종학당재단, 아리랑국제방송, 인민망 한국지사, 중국 교육방송(China Education Television, CETV)과 함께 '여행 한국어'의 첫 촬영을 시작한다. 이날 오전 해외문화홍보원은 외신지원센터(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서 출연진과 제작진을 언론에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제작발표회를 세종학당재단, 아리랑국제방송, 인민망과 함께 개최한다.

중국교육방송(CETV)은 지난 1987년 10월에 개설했으며 산하에 총 5개(CETV-1, CETV-2, CETV-3, CETV-4, CETV-어린이채널)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피티브(IPTV) 채널을 통한 원격교육과 위성방송까지 하고 있으며 시청 인구는 약 9억 7천만 명에 이른다. 특히 이 방송은 중국 정부가 중시하는 사상과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개설한 채널로서, 과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여행한국어>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우위보 인민망 한국지사장은 "이번 <여행 한국어>가 제작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두 나라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민망 본사가 직접 나서 중국의 여러 방송국과 협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중국 국영 중앙 교육방송인 중국교육방송(CETV)4채널에서 방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여행 한국어>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중국인 여주인공이 서울과 강원도를 여행하며 겪는 일화들을 통해 실제 여행에 도움이 되는 한국어와 문화, 여행정보를 얻게 하는 데 제작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 제작되는 <여행 한국어>의 방송분량은 50회(회당 5분)이다. 지난 7월 말에 시나리오 제작을 마쳤으며, 8월과 9월에 촬영과 편집을 마무리 짓고 10월 중에 프로그램을 방영할 계획이다.

<여행 한국어> 제작 구상은 지난 3월 해외문화홍보원과 인민망 한국지사 간 업무협약 체결에서 시작했다. 그 당시 두 기관은 ▲양국 문화와 언어를 홍보하기 위한 상호 교류 사업 추진과 ▲정부부처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korea.net)'과 인민망의 콘텐츠 공유 및 취재 협력, ▲중국의 현지 한국 홍보 사업 관련 교류프로그램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대중국 한국어 교육방송프로그램 제작이 논의됐고 세종학당재단과 아리랑국제방송이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강원도와 서울특별시도 방송 제작을 후원하고 있다.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국의 한국어, 한국문화 보급 기관인 세종학당을 지원해 온 재단의 경력이 반영돼 언어 학습에서 느끼는 외국인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중국 시청자들이 안방에서도 한국을 직접 여행하는 기분일 정도로 스튜디오 촬영이 아닌 현장 촬영 방식으로 문화 체험과 언어 학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갑수 해외문화홍보원장은 "이번 <여행 한국어>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유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업하여 제작한 첫 사례로서, 한국어를 통해 한국과 한국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한 중국 관광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의사소통에 있다는 지적들을 유념하여 앞으로도 <여행 한국어>를 확대, 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 군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언어문화개선' UCC 제작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언어문화개선을 위해 11일 UCC를 제작했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UCC를 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UCC는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늘봄'의 청소년 언어문화개선 활동 '응답하라, 대왕세종'의 일환으로 제작.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늘봄' 청소년 위원들은 UCC 제작에 앞서 지역 청소년들의 언어문화 실태를

조사하고,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이벤트와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인화대국어문화원과 연계한 교육도 진행하는 등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위원들은 직접 기획하고 연기부터 촬영, 편집까지 도맡아 UCC를 제작했고, 제작된 UCC는 군포지역의 버스정류장의 버스안내시스템과 수련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언어와 비속어를 별다른 의식없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진행해 의미가 크다"며 "제작된 UCC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군포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선도 기자

## 대전여고, 야구장에서 욕설OUT! 언어문화개선 캠페인 실시

대전여자고등학교는 지난 7월 28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와 SK의 경기에서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야구장 욕설퇴치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여계동무학교와 친구사랑 3운동) 운영의 일환으로 대전여자고등학교의 학생, 교사 등 80여명이 참여하여 야구경기 진행되는 중간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카드섹션을 통해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야구장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욕설과 비속어, 폭력적 언어 등을 추방하고,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주)한화이글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다.

야구경기 중 휴식시간에 많은 관중 앞에서 '고베 풀린 욕설 훌런으로 날려 봐요!', '부심코 던진 욕설 병살되어 돌아오네', '고운 언어 한줌 씨앗, 열매 맺어 만루 훌런' 등의 재치 넘친 구호로 욕설 퇴치 및 아름다운 언어사용에 관한 카드섹션을 선보여 많은 관중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대전여고 학생들이 지난 28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야구장 욕설퇴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대전여고)

한편,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는 대전여자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폭력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학교폭력 제로 학교다.

'야구장 욕설퇴치 캠페인'에 참여한 조하늘 학생(대전여고, 2)은 "친구들에게 평소 거친 말을 많이 쓰는데 캠페인

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평소 아무생각 없이 던졌던 말들이 남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깨닫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예쁘고 고운 말만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 경남도교육청, 학생 언어문화개선 위한 워크숍 개최

경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간의 언어폭력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전국단위 워크숍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은 18일부터 1박2일간 김해 이이스케이 호텔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언어문화개선에 관심이 있는 전국 교원, 장학관, 장학사 등 250명을 대상으로 학생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의 비중이 제일 큰 시점에서, 학생들의 바른말 사용을 위한 교사의 활동, 학생 언어폭력에 대한 교사의 대처 방안, 학생 언어폭력예방을 위한 지도 방안 등을 교원들이 함께 소통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통해 인성 및 가치관을 확립해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으로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언어폭력 예방 관련 법령의 이해 및 언어폭력예방을 위한 우수 생활지도

사례, 언어폭력 관련 사안 처리의 실제, 인권감수성 향상 등을 통한 바람직한 학교 언어문화 만들기 등 실제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지도 방안 위주의 강의 및 토의로 이뤄졌으며, 경남의 특색 있는 가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 체험의 기회도 주어졌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교원들은 "다 른 학교, 다른 지역 교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언어문화개선 방안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면서 "짧은 기간 감해 가야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가야 건국 신화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 관람을 통해 가야에



경남도교육청은 18~19일 1박2일간 김해 이이스케이 호텔에서 전국 교원, 장학관, 장학사 및 교육부 관계자 등 250명을 대상으로 학생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전국 단위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남도교육청)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뜻 깊은 이색적인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경재 교육국장은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 주관 교육청으로서 학생 언어폭력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 기자

## 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해 민관이 힘 모은다

### 7월 7일~8일 제7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7월 7일(목)부터 8일(금)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세계기록유산 직지의 도시 청주에서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소강훈)와 함께 제7회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어기본법'에 정해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인 국어책임관의 주요 역할은 ▲쉬운 공공용어의 개발과 보급, ▲소속 직원들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국어 소의 계층에 대한 지원, ▲이름다운 거리 명 발굴 등 언어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국어진흥조례 마련 등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496명, 지방자치단체 243명 등 총 739명의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다.

올해로 일곱 번째 열리는 이번 연수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어책임관과 전국의 국어문화원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우수사례 발표, 토론 등을 통하여 국어 발전과 진흥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문체부는 2015년도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 우수 5개 기관(문체부 장관 표창: 교육부, 서울특별시, 여주시/국립국어원 원장 표

창: 행정자치부, 경기도)의 담당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국어책임관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신달자 시인이 특강 강사로 등장, '삶을 빛나게 하는 언어는 무엇인가'이라는 주제로, 언어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받았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참가자들의 국어정책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해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국어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 전세계 한국어 선생님들의 축제, 제8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막



88개소 세종학당 교원 등 300여 명 참가 세계화 논의

'제8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막식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42개국 88개소의 세종학당 교원을 비롯해 국내 한국어 교육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 한국어의 세계화 방향을 논했다.

이경 기자

칼럼 | 이슬 / 시인

“할 수 있다!” 선플같은 유쾌한 긍정(肯定)의 힘!



각본도 주연배우도 따로 정해지지 않고도 장면마다 버라이어티한 우리 삶의 현장.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면서 출입문 쪽의 경로석에 앉아 다양한 드라마를 보고 역할을 맡아 할 때도 있다. 묻지도 않은 말들이 오간다. 어디까지 가세요, 몇 살이세요, 어디 사세요, 자식을 말만찬 줘 해다 주려고요, 에~그 자식들 다 소용 없어요, 그래도 또 해다 주고 있네요, 영감님은요, -사아- 벌써 가버렸지요, 고생 많았잖아요, 말할 수도 없지요.

전동열차는 달궂고 몇 개의 역을 지나다. 세상 좋아져서 오래 사셔야죠, 그러게요 좋은 세상 두고 가기가 아까워요. 열 자리의 두 여인은 십년지기가 다 된 듯 평안하기까지 하다. 이제 내려요 잘 가슈. 동대문역에서 사람들이 웅하니 내렸다. 앞자리 세 자리가 비었고 한 남자가 와 앉고 그 맞은편에 무심히 그 빈 자리를 보고 있는 단역배우. 부시럭 대

며 가방에서 사탕을 꺼내 건넨다. 고맙다며 받는 여인의 반짝이는 장신구가 부딪스럽게 보인다. “늬으니 록이 달라서 이런 걸 넣고 다니네요.” 사탕으로 오가는 정, 싹트는 인정이다. 전동차가 덜컹덜컹 정차하고 열 칸에서 두 사람이 하동대며 건너오더니 빈 자리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앉는다. 안도와 황제를 만난 듯 통쾌한 웃음으로 행복해 한다. 잠깐 사이 사탕을 먹던 여인이 불쑥 말을 꺼낸다. “그 자리 내가 맡아 논거유.” 졸 정까지 좋아라하던 여인들이 멍청하다. 그리고 주변 공기가 추축겨웠다. “아! 고맙습니다.” 환호하던 여인의 대답. “파이팅!”이다. 자리를 맡아 줬다니, 그 말을 시답잖게 받아 민정거리기라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 여인의 여유가 멋있다.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온몸을 휘돈다. 이 ‘유쾌한 긍정’에 박수를 보낸다. 자리를 맡아 두었다는 사람이 고맙다 한 사람이거나 전혀 부담 없이 전철 안의 공기를 살아나게 했다. “대한민국이 파이팅!”이다. 웃음바이라서로, 행복바이러스로 유쾌하게, 긍정적으로 주고받는 모습이 아름답다. 지치고 말없이 가고 오는 이들이지만 오늘이 대한민국의 지력이 아니겠는가. 내가 자리를 맡아 두었다는 이와 그것

을 기쁘게 받아 넘기는 사람이 사는 대한민국이 멋지다. 이 여유와 재치가 우리 생활에서 늘어지고 비뚤어지고 꼬인 이곳저곳에서 받아 안고 유쾌한 긍정으로 손 맞잡고 따뜻함으로 모두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겠다. 복대위가 짜증나고 견디기 어려워도 멀리 ‘리우’에서 전해오는 올림픽 소식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 특히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으로 한 게임 한 게임 믿고 올라서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긍정의 힘은 기적을 낳는다. 얼마 전 사(力士) 윤진희의 바벨은 두 아이에게 긍정의 힘을 보여주었다. 긍정의 힘은 한국 여자 공사의 화살을 타고 세계를 다시 한 번 놀라게 했다. 그들이 단체 금메달을 뒀다는 사실에 앞서 그들이 연습할 때나 시합 때에 늘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주머니들이 있다. 그들은 각자 마음에 품고 다니는 말을 적은 종이를 부직 처럼 몸에 달고 다닌다고 전한다.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나 행동(루틴)을 잊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며 자신감을, 안정감을 잃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 그 긍정의 힘으로 4강에서 3점을 쓰고도 최후에 웃음으로써, ‘장금정’이라는 별명을 얻은 장혜진 선수.

그의 긍정 앞에 절망은 꼬리를 감추었다. 한국양궁은 대표선발전전서부터 환경기에서 쓴 화살이 4000발을 넘었고 거기 더하여 정 종록 석권의 영광 뒤엔 선의의 경쟁은 있어도 파벌은 있을 수 없는 정신과 과학화를 바탕으로 한 힘이 뭉쳐 이뤄낸 영광이다. 활을 쏘는 순간이 행복한 여공사들의 우성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힘이 되었다. “난 할 수 있다”를 꿈꿔오며 한국 펜싱 사상 예페에서 최초로 우승한 박상영 선수는 “나는 할 수 있다”를 보여주었다. 10:14의 거의 절망적 접수에서 ‘47초’의 기록으로, 세계 21위의 20세 막내가 막고 찌르고 날아가 상대 선수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승하였다. 그의 기쁨의 포효는 선수 본인보다 우리 모두의 환호가 되고 ‘대한민국’을 외치게 하였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우승 뒤에 가려진 눈물과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긍정의 힘’은 화합이며 사랑이며 새 힘이 되어 우리를 풍치게 하는 동력이다. 긍정의 힘으로 서로 안아주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을 다시 한 번 외친다.

칼럼 | 차성웅 / 우리아이지킴이 이사

공익광고조차 외국어 및 외래어 남용이 심각하다

외국어는 외국의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되는 언어(예:로드-길,스카아-하늘)를 말하고, 외래어는 다른 국가의 언어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우리나라의 언어처럼 일상생활에 쓰이며 따로 한국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언어(예:라디오,피자)를 말한다. 얼마전 퇴근 길에 차를 운전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경기도에서 하는 공익광고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실질적이나 사회적 약자의 재기를 위해 경기도가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제공한다는 말을 들었다. 보통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면 공학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신부와 같은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빠른 출국 수속을 말한다. 그

런데 도민들의 세금을 써서 자신들의 업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광고인데 그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 중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듣는 순간 이게 과연 공익광고가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빠른 길이나 신속한 지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을텐데 굳이 패스트 트랙이란 말을 사용해야만 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최근 텔레비전 방송에 탈북 새터민들이 자주 출연하는데 어느 방송의 출연자는 남한에 와서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외래어,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같은 민족임에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 때가 많았다는 것이었다. 또 한 여성은 식당에서 일을 하

는데 손님이 오피너(범파게)를 가져다 달라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곤욕을 치루었다고 고백했다. 어느 순간 우리 주변에서는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을 바꾸고 외국어를 남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외국어를 쓰면 세련되고 유식하게 보인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 하다. 같은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사용되는 말을 모른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외국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잘난 체 하는 사람이진짜 잘난 사람은 아닌 것이다. 또한 정확한 의미나 내용도 모르고 뿌리도 불분명한 외국어나 외래어를 상호나 상품명으로 사용하면서 고급과 정리의 일환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말을 천대하고 특정 외국어를 선호하여 사용한다면 이게 바로

문화사대주의가 아닌가. 물론 지나치게 국수적이고 편협한 태도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게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린다면 세계의 발전에 뒤처지고, 또 정보기술과 교통이 발달한 지구촌시대에 외국어나 외래어의 차용이 어느정도 필요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외국어나 외래어를 남용하게 되면 결국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스마트하게 꾸미셨네요, 럭셔리한 가운데 보이쉬한 매력을 풍기네요” 이제 더 이상 방송에서 이런 국적불명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모두 반성하고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칼럼 | 박미경 / 한국NGO신문 취재기자

연예인 향한 과도한 악플, 선플운동이 답이다!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인 AOA의 설현과 그룹 블라비의 지코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교재를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한 언론사를 통해 밝혀졌다. 늦은 시각 두 사람이 서로의 집을 오가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자, 이들의 열애소식은 온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었고 기사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온라인 세상 속 악플러의 손가락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움직인다지만, 연예인들의 가슴거리 특히 아이돌 스타들 앞에서는 더욱 빠르게 움직이는 듯하다. 젊은 아이돌 스타의 연애를 응원하는 댓글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기사 댓글창은 욕설로 뒤덮였다. 특히 ‘대세’ 설현에게는, 나홀모(?) 배신감을 느낀 남성들의 성희롱으로 도배된 성적인 악플들이 쏟아졌다. 지난 5월,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고 ‘김포강’ 발언 논란으로 호되게 혼란 설현에게 이번 일은 더욱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지난 2010년 개설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하 타

진요)는 수년동안 타블로의 스탠포드 학력이 위조라고 주장하며 그의 방송활동과 음반, 심지어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혹을 제기, 증거를 조작하기까지 했다. 이에 타블로는 심적고통을 호소하며 명예훼손으로 악플러 윗비킵스를 고소, 기나긴 재판과 학력 입증 끝에 학력위조라는 오명을 벗었으나 타블로를 할퀴고 간 상처는 아직도 끈질기게 타블로를 괴롭히고 있다. 수많은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들이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대인기피, 공황장애, 불안장애를 털어놓는 스타들을 만날 수 있다. 심지어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최근 몇몇 스타들은 악플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 있으나, 비판을 방패삼아 비난을 쏟아내는 악플들 통해 온라인 댓글창은 가장 손 쉽게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내는 쓰레기장이 되었다. 댓글창을 수놓은 수많은 악플들을

볼 때면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침묵의 나선이론’이 떠오른다. ‘침묵의 나선이론’은 독일의 여성커뮤니케이션학자 노엘레 노이만이 주장한 이론이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국민들을 세뇌시켰던 선전대장 요제프 괴벨스를 경험한 노엘레 노이만은, 침묵의 나선이론을 통해, “사람들은 특정한 의견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다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고품에 대한 공포로 인해 침묵하려 하는 경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즉, 사람들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도 판단될 때, 자신의 이 야기를 말하기 두려워하고 그 침묵이 점점 더 침묵을 가속화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이 소수라는 것을 깨달은 소수는 결국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어떤 사안에 대해 초기에는 양쪽의 의견이 비등해보여도, 뒤로 갈수록 한가지 의견으로 편향되는 현상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설현과 지코의 열애설로 돌아와서, 이들의 기사가 올라왔을 때 누군가 첫댓글로 이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으면 어땠을까? 누군가 선플로서 응원을 하고 뒤이어 몇 명이 더 선플에 동참을 하고, 또 그런식으로 선플이 확산되었다면 이들을 욕하는 악플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플은 껴여있는 일부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플’을 다는 것이 중요하다. 더 많은 다수의 ‘선플러’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선플운동이 우리 생활 속으로 더 깊숙히 들어와야 한다. 칭찬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용서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선플을 달아주는 선플운동은 악플러들의 손가락을 묶어놓을 수 있다. 악플을 이기는 선플을 위해, 선플운동의 확산이 시급한 때다.

사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선플본부가 손잡고 활동한다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이석우)과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이 8월 22일, 선플재단 회의실에서 ‘선플운동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재단은 학교폭력 예방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선플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사이버문화는 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에 비례해 많은 사람들은 정보와 교류를 위한 활용뿐 아니라 감정 소통의 도구로 인터넷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감정에 대한 배설 창구로 악플을 일삼는 악플러가 되어 그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그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악플은 상대에 대한 극심한 피해는 물론이고 사이버상의 욕설로 이를 일삼다 보면 자신의 인성도 황폐해지기 마련이다.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던 민병철 교수가 자신의 영어수업을 들던 대학생들에게 선플과제를 내어준 것이 계기가 되어 2007년 한국에서 최초로 선플운동이 시작되어 지난 9년간, 국내에서 7천여 학교와 단체에서 62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협약식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사이버문화와 언어를 바로 세우는데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선플운동 확산을 통해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다는 내용의 뜻을 밝혔다. 또 선플재단 민병철 이사장은 “심각한 악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청소년 선플인성교육과 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90조2에 의거하여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전국의 6개 권역별 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시청자의 방송참여 프로그램, 미디어교육, 방송장비·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선플운동으로 사이버상의 도덕성회복운동과 인성교육을 함께 해온 선플운동본부의 그동안 실질적인 활동으로 미루어 보면 준정부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협약으로 한층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사이버 인성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청소년의 건강한 언어문화 조성이 필요한 이유

‘헐, 쩌다, 대박, 짹, 솔까말...’ 등은 요즘 학생들의 일상언어다. 우리나라 학생들 3명 중 2명이 대화의 절반 이상을 은어(隱語)와 비속어(穢)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국교총의 지난해 한글날을 앞두고 조사한 결과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언어생활 습관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초·중·고 학생들은 특히 말을 할 때마다 ‘개, 짱, 처’ 등 저속한 부사나 감탄사를 사용하며, 또한 ‘헐, 쩌다, 대박, 짹, 솔까말(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열라, 프사(카카오톡 등 프로필 사진), 페드립(가쪽을 육체 친구를 괴롭힘), 땡땡(수업이 끝났으니 이제 그만하자), 미광날뻘(미치광이처럼 열정적으로 날뛰다)며 지도하는 선생님), 관공(관심받고 싶어하는 종자), 아리(답배), 까비(아깝다), 쫄뿌(아주 못생긴 애) 등 자신들만의 비속어와 은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요즘 학생들은 비속어와 은어를 일상 언어처럼 사용한다. 학생들이 쓰는 이런 말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에도 당황하고 뜻을 몰라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더러는 혹시 학생이 선생을 무시하는 언어가 아닐까 하는 속마음에 노심초사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물론 당혹감을 감추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라고 학생들을 지도하면 학생들은 겉으로는 “네!”하며 수긍을 하지만 학생들끼리 모이면 다시 이런 은어, 비속어 사용을 하면서 이들 말은 유행처럼 번져 습관을 넘어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 부모들 역시 자기 아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간섭하면 요즘 시대 흐름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며 결국 싸움으로 번지는 세상이 되고야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행동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지를 모르는 것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과 같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두뇌는 영향을 받아 반응하며, 언어는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지시한다. 심지어 언어는 습관을 만드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뇌는 태어날 때 2/3가 만들어져 3살까지 나머지 1/3이 형성된다고 한다. 유아기에 사용하는 언어는 평생 동안 사용하는 언어가 되며 뇌는 18세가 지 발달한다. 뇌 발달시기에 사용하는 언어가 평생의 사고력과 습관을 결정하게 된다. 유행어와 비속어는 다르다. 유행어는 재미로 기억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지워지지만 비속어는 강한 메시지를 남기기 때문에 영원히 기억되고 평생 동안 사용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 은어와 비속어의 남발은 학교교육을 파괴하고 청소년의 뇌를 마비시키고 꿈조차 깨트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비속어와 은어를 한때의 유행어라고 하면서 무심코 넘기거나 도가 넘는 비속어는 계도할 필요가 있다. 언어는 바로 행동을 부르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건강한 언어문화 조성을 위해 어른들의 솔선수범은 물론이고 어떤 생활교육을 시켜야 할지 깊이 고민할 때다.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인성신문		2014년 11월 28일 창간	
발행인 · 민병철	편집인 · 여영미	인쇄 · 이철구	
발행처 (사)선플운동본부			
본사 0622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역삼동) 유행명당 15층			
대표전화 02)535-3449	팩스 02)6008-3377		
편집국 02)535-3156	E-mail sunfull@bcm.co.kr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안녕! 우리말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 쉬운 말로 국민과 통하는 공공언어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부 정책을 알립니다.
-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 품격 있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 아름다운 방송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키는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 기성세대의 관심과 청소년의 참여로 가꿔가는 청소년 언어

-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대합니다.
- 격려와 위로의 대화로 희망찬 삶을 만듭니다.

'안녕! 우리말'은 심각한 언어 파괴로 상처받은 우리 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이름입니다.

